



■ 호밀은 수확 시기가 늦으면 사료가치와 가축 기호성이 낮아진다.

- 과거에는 호밀의 수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개화기 또는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유숙기 전후에 수확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는 수량은 많으나 잎과 줄기가 딱딱해져서 기호성이 좋지 않다.
- 호밀은 출수 초기(4월 초순 또는 중순)에 수확을 하면 단백질 함량이 높고 섬유소 함량이 낮아 기호성이 아주 좋다. 이 시기에 수확하는 호밀은 수분이 많으므로 품질 좋은 사일리지를 만들려면 하루 정도 예비건조해 수분 함량을 60%~6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 호밀의 식물체는 이삭이 팬 후부터 식물을 질기게 하는 ADF(산성세제불용섬유소), NDF(중성세제불용섬유소) 함량이 늘기 시작해 결국 사료가치를 나타내는 TDN(가소화양분총량)과 RFV(상대사료가치)가 감소한다.

〈 호밀의 생육 시기별 수량성 및 일반조성분 변화(축산원, 1986) 〉

생육단계	수량(톤/ha)		일반조성분(%)				
	생초	건물	조회분	조지방	조단백	조섬유	NFE
초고 60cm	14.8	2.1	7.7	2.8	19.8	26.6	43.1
수잉기	31.3	4.1	6.4	2.5	14.4	30.8	46.0
출수기	42.4	6.2	5.9	2.2	11.3	32.5	48.2
개화기	50.2	8.3	5.0	2.1	10.9	31.7	50.3
유숙기	48.2	9.5	4.7	3.0	9.9	29.3	53.2
황숙기	43.5	10.6	4.0	3.1	9.4	30.1	53.4
완숙기	39.6	11.7	5.1	2.7	8.2	32.0	52.0
고숙기	36.5	12.1	5.2	2.5	7.7	34.2	50.5

■ 호밀은 이탈리아 라이그라스(IRG)보다 가축 기호성이 낮음

- 건물 섭취량(kg/일/두)은 IRG(코그린) 1.97 > IRG(코스피드) 1.13 > IRG(코원어리) 0.77 > 호밀(곡우) 0.36 순으로 차이가 있다.



호밀과 IRG 사일리지의 가축 섭취 비율(축산원, 2010)